

# 옛것과 새것 어울리는 동네... 곳곳마다 특색 제각각



2019  
조미영의  
제주마을탐방

<11> 신구 조화 노력하는 일도2동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의 남동쪽에 딸기밭이 있었다. 그곳을 조금 벗어나면 지금의 문예회관 사거리가 나오는데 인화동이다. 그때만 해도 집보다는 소나무로 둘러싸인 들판이 더 많았다. 동네아이들은 웬만하면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놀았다. 이 공터들이 마을과 마을 사이의 암묵적 경계이기 때문이다. 인제사거리의 인제아파트는 1975년에 지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인화동 입구에는 나무숲과 함께 산장이 있었고, 큰비가 오면 물이 넘치던 내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도로가 넓어지며 도시가 급속히 팽창한다. 마을들 사이의 여백과도 같았던 공터가 사라지고 집들이 뻗어 들어 서며 경계는 사라졌다. 대신 행정을 위해 마을길을 따라 나뉜다. 일도2동은 일도리의 한 마을이었으나 동문 밖으로 마을이 확장되며 분할돼 지금에 이른다. 현재는 동쪽으로 건입동과 화북동 그리고 서쪽은 이도1동과 이도2동을 이웃해 있고 북쪽으로는 일도1동이 남쪽으로는 이도2동, 화북동과 인접해 있다. 원래 일도2동은 동초등학교의 맞은편의 '구중마을', '두무니머세', 지금의 일도초등학교 인근의 신산모루 등을 거쳐서 마을이 형성됐다. 첫 번째 확장 시기는 1950년 한국전쟁 등으로 이주민 유입이 많아지며 커졌다. 이후 1968년 신산1지구, 1980년 신산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학교와 공원이 조성되며 빠르게 발전해 갔다.

그리고 1985년 일도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마을과 마을 경계던 공터들 급격한 도시 팽창에 사라져

옛 모습 남은 신산모루 일대 정주여건 개선 등 과제 남아 일도지구는 주택·인구 밀집 특성 아우를 노력 이어져야

이 예고된다. 저렴한 택지를 대규모 개발 후 공동주택을 다양 공급해 제주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했던 최초의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옛 마을 고매장과 새나곳, 조개물 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아파트가 대신 자리한다. 이처럼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 인구도 많다. 현재 1만3226세대 3만3965명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이 같은 개발의 역사로 인해 일도2동 내 마을 특성은 각기 다르다. 신산모루 일대의 마을들은 여전히 구도심의 특징을 갖고 있다. 좁은 골목의 옛길과 오래된 집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형태이다. 일도2동의 뿌리와도 같은 정감어린 동네이지만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후주택 보수와 골목길 보행환경 정비 주차공간 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이 주요골자다.

두명이 골목에 대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제주동초등학교 앞 구중동과 여상 앞 두문동을 잇는 320m의 거미줄같은 골목인 이곳은 2008년 공공미술 공모사업에 의해 벽화골목으로 조성됐다. 이후 2009년 예술정원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 재생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불편한 주차여건과 상권의 미비로 답보 상태다. 이의 해결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반대로 아파트가 많은 일도지구는 신도시이다. 교통 환경과 주차 그리고 근린공원 등의 관리가 중요하다. 계획도시인 덕분에 어린이 공원은 물론 일도체육공원인 그린 쉽터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의 공급도 늘리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일도2동의 서쪽으로 신산공원이 자리한다. 제주시 최대의 시민공원인 신산공원은 시내 중심부에 자리해 사시사철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그 옆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국수거리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약 30여년 전 조그마한 국수집이 시발이 돼 지금은 제주의 대표적인 음식문화 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고마로는 사라봉오거리에서 인제사거리를 지나 연삼로 사거리까지의 남북 간선로이다. 과거 목마장에서 선발된 공마들을 육지로 실



1 제주시민들의憩터인 신산공원 2 도로확장과 상점벽화마을을 가꾸는 모습 3 고마로의 상징탑

어 나르기 위해 말을 몰고 다니던 골길이다. 당시 말들을 방목했던 고마장의 울창한 숲과 말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고수목마(古藏牧馬)라 해 영주십경의 하나로 불리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현장은 남아있지 않고 고마장과 표지석만이 남아 흔적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보니 일도2동은 다양한 특색을 갖춘 동네이다. 신구의 조화를 이룬 마을들과 공원과 주택지들이 어우러진 풍광에 더해 관광지까지 적재적소에 위치하며 모여 있다. 이 같은 마을자원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과 행정의 지혜로운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 <여행작가>

인터뷰

## “옛 마을과 환경 정비해 살기 좋은 곳으로”

김두경 주민자치위원장



우리 마을은 문화, 역사, 예술, 자연이 다 어우러진 마을이다. 신산공원과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문예회관 등이 있다.

사라봉오거리에서 연삼로까지 거리를 '고마로'라 한다. 과거 그곳에 천연방목장이 있었다.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고마로마문화거리를 조성해 특색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10월에는 고마로마문화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옛 마을들을 정비해 살기 좋은 정주여건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작년부터 시행한 '곱들락한 신산모루' 사업을 시작으로 이웃마을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도시 재개발

의 형식이 아닌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환경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국수거리 인근 등 공용주차장이 들어서면서 만연한 주차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일도2동의 꿈'이라는 이름의 소식지를 발간한다. 동민들의 소통을 위한 격월간지로 2008년 10월 창간호를 낸 이후 지난 8월 79호까지 발행했다. 그 외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후 이렇게 배출된 팀을 모아 봉사단을 조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 “마을 특성 맞는 맞춤형행정”

김덕연 동장



마을의 규모가 크고 특성도 다양하다. 일도지구의 신도시와 신산모루의 구도심이 혼합된 구조라 각기 마을마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행정을 해야 한다. 또한 국수거리 등의 관광객을 위한 거리정비 사업 등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의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12세대 규모로 1~3층은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일도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긴다.

관내에 일도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가 있다.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안전을 위해 주변 정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과 주민들의 상호협조로 일도2동을 살기 좋게 가꾸고자 한다.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0,000원 환급)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8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제품은 '연료'가 아니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9-041800079

## WIDEX 하이 디피니션 히어링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 755.1005

